

전남도,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으로 미래먹거리 확보 나서

해상풍력·영농형태양광 특별법 등 RE100 글로벌 중심지 기반 다져 에너지 고속도로 정부지원 건의 분산에너지법, 투자환경 조성 계획

전남도가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 김영록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한 전남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강조하며,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4법은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이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전남이 분산, 재생에너지100(RE100)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토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4대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해상풍력.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사업 확장을 목표로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농업진흥

구역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 단지 모델을 제도화해 난개발을 막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전력계통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한전이 전남과 같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법안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고속도로 건설비의 절반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송배전시설) 또한 재정이 어려운 한전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의 경우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 PPA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제를 반영,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대응키 위해 지난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실·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100·분산에너지 활성화 TF를 구성했다.

김 지사는 "미래산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고,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100에 잘 대응하는 것이 전남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4대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전남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수도로 힘껏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세계양궁대회 홍보대사 위촉

광주에서 열리는 2025세계양궁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등 본격 붐 조성에 나선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세계양궁대회(9월 5~12일)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9월 22~28일)를 알리기 위해 안산·기보배·김육금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들은 오는 12일 위촉장을 받고 양궁대회 알리기에 나선다.

세계양궁대회는 90여개국, 9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3개 호텔·1250개의 객실을 확보했으며 시설도 점검하고 장애인 휴게시설도 마련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전남도

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

전라남도는 연료비, 인건비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 및 적용기준에 따라 목포, 순천, 여수시 시내버스 요금을 10월 1일부터 인상한다.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인 1,700원(현행 1,500원), 중고생 1,350원(현행 1,200원), 초등생 850원(현행 750원), 좌석버스 2,400원(현행 2,10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정책에 따라, 본인 인증이 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현행대로 100원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강진군

'마랑미향축제' 2년 만에 열려

강진군 마랑면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13회 마랑미향축제'를 개최한다.

축제가 진행되는 장소는 매주 토요일 '마랑놀토수산시장'이 열리는 마랑미향 일원에서 열리며, 이번 축제는 코로나 여파 이후 개최된 지난 축제와는 달리 다양한 볼거리 및 푸짐한 경품추첨 등 관광객을 사로잡는 프로그램 등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2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마랑놀토 수산시장의 먹거리와 개막식 공연, 유명 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합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전국 1위

합천군이 2023년도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돼 교부금 6700만원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경유차량에 부과되며 환경개선비용 재원으로 사용된다.

군은 2023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3억 6000만원의 징수결정액 대비 3억원을 징수해, 82%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합천(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도, '결혼·출산·보육 거점' 선정

2026년까지 총사업비 50억으로 안동시에 맞춤형 시설 조성 예정 특화 프로그램, 종합 서비스 제공

경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확보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경북 북부지역에 결혼·출산·보육 거점이 생겨 도민들이 이 분야 정보를 쉽게 얻고 특화 프로그램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공모는 인구감소 지역(전국 89개) 및 관심 지역(전국 18개)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전문가들의 현장 점검과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경북(안동), 강원(속초), 전북(익산)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북부지역 시군 공동 이용 및 협력, 돌봄과 일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편의점 등 특화 프로그램, 보건

소·도서관 등 인근 기관·시설과의 연계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 사랑 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특별교부세 38억원, 지방비 12억원)으로 안동시 운흥동 인근 건물을 개보수해 결혼·임신·출산·보육 등 핵심 분야별 맞춤형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층(결혼)은 청춘남녀 만남을 위한 청춘 놀이터, 북카페, 2층(보육)은 일자리편의점, 돌봄도서관, 3층(임신)은 임신부 상담소, 엄마 교실, 4층(출산)은 출산가정 종합상담, 가족놀이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곳은 또 시군 인구정책 부서와 병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새일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지역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목포시-카카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수산물 판로 확대 등 협력방안 모색

카카오는 5일 목포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와 목포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산물 판로 확대 및 소비 촉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주문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에서 목포시의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기획전 등을 진행하고 여행, 체험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진행되는 둘레길 걷기 캠페인 '대한민국 한 바퀴 챌린지'의 서해랑길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 캠페인과 관광 상품을 연계·개발



전라남도 목포시청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박홍률 목포시장(왼쪽)과 카카오 김정민 리더.

/카카오

해 판매할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카카오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 사업가들을 위해 콘텐츠 제작, 제품 사진 촬영 지원 등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제품 판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해민 기자 hyem@

부산시교육청, 늘봄 프로그램 교재 보급

한글, 수학, 영어 보조 교재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부산형 늘봄학교 교육과정과 이를 보조할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교재를 현장에 보급한다.

이는 부산형 늘봄학교 체계 구축을 통해 질 높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늘봄학교 교육과정으로 ▲A형(교육청 표준 늘봄) ▲B형(학교 특색 늘봄) ▲C형(공공기관 연계 늘봄) ▲D형(민간 연계 늘봄) 등 4개 유형을 개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박재형 부산

교대 교수를 비롯해 교육연구사, 교사 등 12명으로 연구·개발팀을 꾸려 교육과정을 개발해 왔다. 이들은 부산형 늘봄학교 추진 방향, 중점과제, 교육과정 주제, 질 관리 방법, 단계별 운영 및 평가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부산교육청은 A형 교육과정의 한글 놀이, 놀이 수학, 놀이 영어 등 3개 영역과 이를 보조할 교재도 개발했다. 영역별 40차시 학습계획, 교수·학습 지도안, 활동지 등 자료를 담은 현장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도,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대책 마련

3년간 고령자 보행사망자 65.5%

전남지역 65세 이상 보행교통사고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안전물품 제공 등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전남지역 전체 교통사고 보행사망자는 223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 146명으로 65.5%를 차지했다.

2020년 83명 중 51명이 65세 이상이었으며 2021년 80명 중 59명, 2022

년 60명 중 36명을 각각 기록했다.

또 전남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25.2%로 전국 평균 18.2%보다 높아 고령자 교통사고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공단은 우선 수확철 농기계 사용·도로 보행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농촌마을 교통안전 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비롯해 고령자 전용 교통안전물품 배포, 마을 인근 도로 시설 현장점검을 통한 결함요소를 발굴 등에 나선다. /전남=양수영 기자